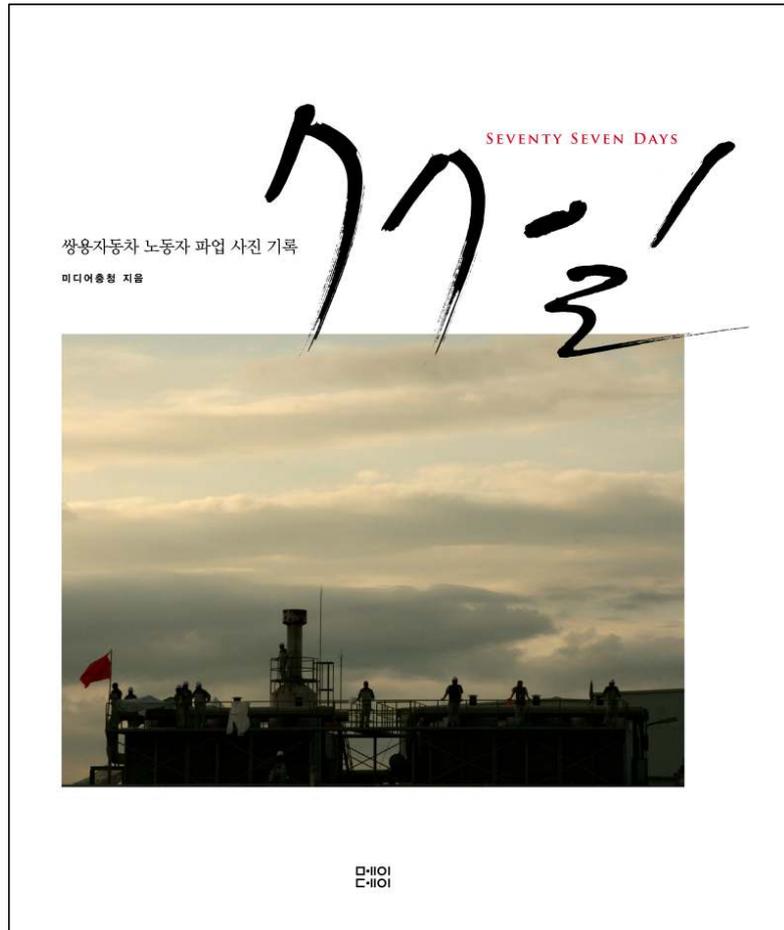


신간보도 협조 요청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7일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사진 기록
미디어 충청 지음

2009년 10월 12일 발행 | 208쪽

판형(190*245) | 값 18,000원

ISBN 978-89-91402-35-5 03330

메이데이
메이데이

도서출판 메이데이
(우140-735)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7 용산투밸리오피스텔 1312호
전화 02_2277_5453 팩스 02_6008_5138/ maydaypub@yahoo.co.kr
보도자료 및 표지이미지_웹하드 아이디_maydaypub 비번 0501

문의 사항

미디어충청 정재은_011-9186-4103
메이데이 한진용_016-9865-5651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사진 기록 - ‘공장안’으로부터 되살려낸 77일간의 기록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출판사 서평>

-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그 역사적인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다!
- 파업 77일간, 고립된 공장 안의 모습을 사진으로 생생하게 되살리다!
- 77일간 공장안에서 파업노동자와 온몸으로 함께 한 미디어 총칭의 취재!
- 쌍용차투쟁, 단일 노동사건 구속자 최다,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77일’

2009년 5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은 단지 회사의 정리해고에 항의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했던 기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77일’은 회사의 부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던 기간이었습니다.

‘77일’은 쌍용차의 부도사태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 듯 침묵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공권력의 이름으로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라 강요했던 기간이었습니다.

‘77일’은 이런 현실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침묵을 강요받았던 기간이었습니다.

아니 ‘77일’은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리해고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시각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77일’은 노동자들이 왜 공장점거 파업을 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공장밖’에서 본 파업은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뉜 노동자들이 서로 다투고, 불법과 폭력만이 난무하고, 회사의 회생을 가로막는 무리한 요구뿐이었습니다.

‘77일’이 다시 ‘공장안’으로부터 되살아납니다.

미디어총칭 기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로소 우리는 ‘77일’간의 공장안의 모습을,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삶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의 목소리를 가능하면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77일’간 파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갈망했고, 왜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를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책 <77일>은 말이 없고 여백이 많습니다.

아마 미디어총칭 기자들은 그 여백을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침묵했던 우리 모두에게 남겨둠으로써 묻고 있습니다.

“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77일간 절망적인 파업을 했는가?”

“우리 사회가 왜 부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것에 침묵했는가?”라고 말입니다.

<77일>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사진 기록입니다.

미디어 총칭 기자들이 파업 기간 중 파업 현장안에서 기록한 생생한 보고서입니다.

미디어 총칭 기자들은 자신들의 몫을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77일간 밖에 있던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77일간의 파업은 단지 쌍용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77일 -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사진 기록>을 시작으로 우리는 그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미래를 향한 기억이 될

77일의 삶” 으로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77일간 공장안에서 파업노동자와 함께 한 미디어총청의 생생한 취재”

<본문 가운데서>

“원망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을 77일간의 삶이다.”

77일간 우리가 본 것은 ‘손실의 사회화’ 과정이었다.

자본의 손실을 사회화하는데

‘인권’ ‘헌법 가치’ ‘법’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걸치레였다.

사병의 나라였던 쌍용차,

그곳에서 온 몸으로 ‘사람의 삶’을 노래했던 사람들 이야기다.

그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이들의 이야기다.

77일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을지라도

힘들어 떠나고 애타는 가족의 부름에 응했을지라도

괘씸죄로 해고되었든 용케 살아남았든

구속되었든 아니든

설사 희망퇴직을 했을지라도,

비록 지금 다른 자리, 다른 생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손실의 사회화’에 맞섰던 그들의 노래 77일은 그들의 찬란한 삶이다.

원망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을 77일간의 삶이다.

그 77일간의 주인공들에게 이 기록을 바친다.

_<77일> 가운데

“77일간

인간이길 거부당한

파업노동자

그러나 평택공장엔
분명 인간이 살고 있었다.

누군가는 춤을 추고
누군가는 노래하고
누군가는 동료들을 웃게 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는 화장실을 만들고
누군가는 살림을 하고
누군가는 싸우는 법을 알고
누군가는 동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

그렇게 파업은 노동자를 하나로
단결시킬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이게 했다.”

<파업 일상> 가운데서

길거리로 내몰려 공장 라인을 멈추고 옥쇄파업을 선택했던 노동자.
파업 이후 이들의 가슴에 다시 이른 추위가 찾아들었다.

“00형사를 믿은 내가 바보였다. 살려준다는 말에 복직시켜준다는 말에 너만큼은 빼줄 수 있다 ... 가정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동료들 팔아먹은 죽일 놈입니다.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내 진술서에 3명의 진술은 거짓 진술입니다”_유서 가운데

8월 22일, 77일 파업에 참가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경찰의 허위자백 강요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노조와 회사가 ‘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지 불과 15일만의 일이다.

노동자의 자살 시도는 77일 파업 이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 구속자 수 단일 노조 사건 최대 기록, 민·형사상 책임 압박, 파업 참가자들의 노조 사무실·공장 출입 금지... 공장안 노동자들은 ‘로봇’이 되어 그들의 일상마저 통제당하고, 회사는 한 발 더 나가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강압적으로 추진했다.

파업참가자들이 단 한 발자국도 들여 놓을 수 없는 공장은 자본의 철용성이 되어 세상과 모든 끈을 차단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자동차는 출시되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의 삶은 증발했다. 자물쇠로 잠긴 노조사무실은 쌍용자동차 노사 관계의 자화상이며, 대타협의 이름 아래 수십 명의 구속도 모자라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베푼 댓가이다.

‘화합과 통합은 시대정신’이라던 이명박 대통령도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는 합구하고 있다. 회사측과 용역깡패의 무법, 탈법적 폭력에 보조를 맞춰 ‘공권력(?)’을 집행했던 경찰국가 2MB 정부는 파업 종결이후 공장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용인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계급적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경찰 헬기 소리가 귀에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노동자. 음식물 차단으로 매일 먹던 주먹밥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단수, 소화전 차단 조치로 한 여름에 씻지 못해 피부병에 걸렸고, 의료진 차단으로 외상은 굶았던 그 기억의 상흔...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노동자들은 그렇게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할 시간도 없이 다시 회사와 맞서고 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_<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가운데

차 례

77일

파업일지

1. 내몰린 사람들
 2. 20090522
 3. 세상에 외치다.
 4. 파업일상
 5. 내부의 적
 6. 포위, 봉쇄, 섬멸
 7. 인권
 8. 함께 하고픈 사람들
 9. 사랑하는 사람들
 10. 외로운 섬
 11. 저항
 12. 미래를 향한 기억
-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진설명

지은이 소개

미디어충청_ <http://www.cmedia.or.kr>

“노동자의 눈, 여성과 성소수자의 삶, 농민의 손, 장애인의 발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거리에서 투쟁하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권력과 자본을 비판하고, 논쟁을 펼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보다 긴 호흡으로 일상에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담겠습니다.”

미디어충청은 대안언론입니다.

그동안 언론이 외면하고 무시했던 충청 지역의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가 미디어충청의 주인입니다. 노동자·민중이 이끄는 미디어충청은 다른 세상을 만드는 상상력으로 현실을 돌아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대안과 전망을 찾아나가는 언론이 되고자 합니다.

